



남원시, 다문화가족 고향나들이 최종 대상자 확정

남원시는 지난달 30일, 다문화가족 고향나들이 지원사업 대상자 선정을 위한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최종 대상자를 확정했다. 이 사업에는 총 29가구가 신청되었으며, 기본조건에 대한 △서류심사 △가정현황 △결혼기간 △고향나들이 선발이력 △모교 방문횟수 △자녀수 △가족부양 △가족센터 교육 참여 횟수 등 8개 항목에 대한 종합심사를 거쳐 최종 10가구를 선정하고 7가구를 예비후보자로 확정했다. 특히, 올해는 도비보조사업 이외에 시비 5백만원을 추가 확보해 총 3천만 원을 지원하였으나, 중동전쟁에 따른 유류 가격 상승 등으로 항공료가 인상됨에 따라 지원 규모를 일부 조정 운영하게 되었다. 선정된 가정은 왕복 항공료와 여행자 보험료, 공항 왕복 교통비 등의 지원 혜택이 주어지며, 4월부터 본인이 원하는 시기에 자유롭게 고향을 방문할 수 있다. /남원=김기우 기자



장수경찰서, 트레일레이스 대회 앞두고 합동점검

1일 황재현 장수경찰서장은 오는 3일부터 5일까지 3일간 '제7회 장수트레일레이스' 개최에 대비하여 장수군 전 지역을 통과하는 트레일레이스(산악마라톤)대회의 성공을 위한 지자체와 합동점검에 나섰다. 장수트레일레이스는 인공 트랙이나 아스팔트가 아닌 숲길, 휴길 등 자연지형을 달리는 스포츠로 참가자들이 수려한 자연경관을 체험할 수 있어 매년 높은 호응을 얻고 있다. 이번 대회는 3,600여명(외국인,스텝포함)의 참가 선수가 장수군 전역을 탄압한다. 총 5회의 사전 합동점검으로 도로이용구간을 최대한 줄였고 안전시설을 집중 점검했다. /장수=고관호 기자

장수소방서, 화재 발생 가정한 무각본 훈련 실시

장수소방서(서장 한동규)는 지난달 31일, 장수군 계남면에 위치한 더레드하우스에서 대형 화재 및 복합 재난 상황에 대비한 긴급구조통제단 불시 가동훈련을 실시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훈련은 장수군 긴급구조통제단의 실질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예측 불가능한 재난 상황에서 각 부서별 임무 수행 능력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훈련은 다중이용시설인 베이커리 카페 내 원인 미상의 화재 발생을 가정해 진행됐으며, 기존의 보여주기식 관행에서 완전히 탈피했다. 특히 시나리오 없이 현장에서 즉흥적으로 부여되는 물발 메시지에 따라 조치하는 무각본 실전형 방식을 채택해 훈련의 실효성을 극대화했다. /장수=고관호 기자

전북대 오영민 교수, 경추 치료 연구 성과 '인정'

대한노인신경외과학회 '학술상' 수상 영예... 노인 경추질환 수술 전략 제시

전북대학교병원 신경외과 오영민 교수가 최근 열린 '2026 제29차 대한노인신경외과학회 정기 학술대회'에서 구연발표 학술상을 수상했다고 1일 밝혔다. 대한노인신경외과학회 정기 학술대회는 매년 노인 신경외과 분야의 최신 연구 성과와 치료 방향을 공유하는 자리로 운영되고 있다. 대한노인신경외과학회 학술상은 노인 신경외과 분야, 특히 고령의 경추 질환 환자 치료 발전에 기여한 연구 성과를 인정해 수여되는 상이다. 오 교수는 이번 학술대회에서 '노인에서의 경추 전종양내과 골화증 수술적 치료'를 주제로 임상 경험과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연구는 고령 환자에서 증가하고 있는 경추 질환에 대한 효과적인 수술 전략과 치료 성과를 체계적으로 정리한 것으로, 신경외과 척추 분야 발전에 기여한 점을 높이 평가받았다. 특히 이번 수상은 고령화로 급증하는 노인 경추 질환 환자 치료에 있어 임상적 접근과 수술 기법의 방향성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를 더하고 있다. 경추 전종양내과 골화증은 목뼈 앞쪽 인대가 뼈처럼 딱딱하게 굳어지는 질환으로, 두꺼워진 인대가 식도를 압박해 굳어지는 질환으로, 두꺼워진 인대가 식도를 압박해 심한 삼킴 곤란을 유발하는 것이 특징이다. 고령 환자의 경우 음식물 섭취가 어려워 영양 불균형 등 심각한 건강 문제로 이어질 위험이 크다.



오 교수는 이번 연구를 통해 골화된 전종양내과를 제거하는 수술적 치료가 삼킴 곤란 등의 증상을 효과적으로 개선할 수 있음을 입증했으며, 실제 병원에서 시행한 치료의 우수한 임상 결과를 제시했다. 또한 고령 환자 증가에 대응해 오랜 임상 경험을 바탕으로 최소 침습 및 다각적 접근법을 적용함으로써 치료 효과를 극대화하는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오영민 교수는 "고령화에 따라 노인 경추 질환 환자가 증가하고 있는 만큼, 풍부한 수술 경험과 지속적인 연구를 통해 치료 효과를 극대화하는 것이 목표"라며 "앞으로도 노인 척추 질환 치료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양종철 병원장은 "이번 수상은 우리 병원 의료진의 우수한 연구 역량과 임상 전문성을 대외적으로 인정받은 뜻깊은 성과"라며 "중증·고난도 질환에 대한 진료와 연구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지역민에게 신뢰받는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오상근 기자

임실군, 옥정호 광역상수원 지킴이 발대식·역량 강화 교육

임실군이 옥정호의 수질 보호와 오염원 관리 강화를 목적으로 지역 주민을 중심으로 모집한 2026년 옥정호 상수원 지킴이 사업에 본격 돌입했다. 옥정호 수질보전을 위해 지역 주민으로 구성된 28명의 옥정호 상수원 지킴이는 올해 10월까지 약 7개월간 옥정호 상수원으로 유입되는 오염원 사전 차단 및 관리, 불법 어로행위, 세차, 쓰레기 무단투기, 축산농가의 가축분뇨 무단 처리 등 수질오염 불법행위 단속 및 상시 감시체계를 구축하여 수질보전에 앞장선다. 이에 따라 4월 1일 본격적인 활동에 앞서 옥정호 관리사무소에서 '2026년도 옥정호 상수원 지킴이 발대식'을 갖고 지킴이 근무 요령 및 안전교육을 실시했다. 현재 군은 봄을 맞아 옥정호 대표 관광지인 옥정호 출렁다리, 봉어섬 생태공원 및 물안개길 등을 찾는 관광객과 4월 11일부터 12일까지 2일간 개최되는 옥정호 벚꽃축제로 수많은 관광객이 임실 옥정호를 방문하는 만큼 상수원 지킴이 활동을 통하여 불법행위 감시 활동과 방치 쓰레기 수거 등 수변 정화 활동을 본격적으로 펼쳐 수질보전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또한, 여름철 집중호우와 태풍의 영향으로 유입되는 많은 양의 쓰레기를 사전 집중 수거 활동 통해 깨끗한 옥정호를 만들어 갈 계획이다. 군은 지난해 광역상수원 지킴이 사업을 통해 22.3톤의 옥정호 수변 쓰레기를 수거해 옥정호 광역상수원 수질 향상에 크게 이바지했다. /임실=진홍영 기자



고산농협, 일손돕기·영농 폐기물 수거 캠페인 실시

고산농협은 1일 '농심천심' 운동의 확산을 위해 영농철을 맞아 비농민 일대에서 일손돕기 및 영농 폐기물 수거 캠페인을 벌였다. '농심천심' 운동 확산을 위해 고산농협 임직원 및 고향주 부모님 회원 40여명이 이번 캠페인에 참여했다. 먼저 지난해에 정리하지 못한 폐비닐, 폐농약병, 폐농자재 등 영농 폐기물을 집중 수거해 농촌지역의 환경오염을 예방하고 쾌적한 농촌 환경 및 지속 가능한 영농 환경을 조성하였으며, 영농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결혼이민여성 농업인을 방문해 수박도 정식 작업을 도와 적기에 정식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도왔다. /원주=염재복 기자



부안소방서, 청명·한식 대비 특별경계근무 돌입

부안소방서(서장 최길웅)는 청명·한식 기간을 맞아 산불 및 각종 화재 발생 위험이 증가함에 따라 4일부터 7일까지 특별경계근무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특히 청명과 한식은 성묘객 증가와 함께 묘지 정비, 쓰레기 소각 등 화기 사용이 늘어나는 시기로, 산불 등 대형 화재 발생 위험이 높은 시기다. 이번 특별경계근무 기간 동안 부안소방서는 공원묘지, 등산로, 산길 인접 마을 등 산불 취약지역을 대상으로 사전 점검을 실시하고, 화기 취급 및 소각 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과 예방 홍보를 병행할 예정이다. 한편 드론을 활용한 공중 감시로 위험요인을 조기에 발견해 대응할 방침이다. /부안=김석진 기자

남원소방서, 산악사고 맞춤형 구조체계 구축

남원소방서가 봄철 산악사고 예방과 여름철 수난사고 대비를 위한 유관기관 협력체계 강화에 나서며, 지난달 31일에 지리산국립공원 전북사무소, 남원시청 관계자들과 계절별 안전대책 수립을 위한 유관기관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사고 예방과 신속한 대응을 위한 기관 간 협업을 공고히 하고자 마련됐으며, 봄철 지리산 바래봉 일대에서 운영되는 '등산목 지킴이(산악안전지킴이)' 활동과 여름철 뱀사골 일대에서 운영될 '119시민수상구조대' 계획을 중심으로 각 기관의 역할 분담 및 협조 사항이 중점적으로 다뤄졌다. 특히, 등산객이 집중되는 봄철에는 바래봉 등산로 입구에 간이응급의료소를 운영하고, 예방 순찰과 안전 산행 홍보를 병행해 산악사고 방지에 총력을 기울인다. /남원=김기우 기자

전주매일

www.jmaeil.com 등록번호 전북 가00016

2009년 11월 23일 등록(일간) (우)660-912 전주시 완산구 기린대로 222 4층 (서노송동)

발행·편집인 조봉성 부회장 김승곤 부사장 김양욱

·대표전화 288-9700 ·업무국 FAX 288-9703 ·편집국 FAX 288-9704

Table with 3 columns: 전주지사, 중앙지사, 남원지사, etc. with phone numbers.

*구독료 : 월13,000원, 1부 500원 인쇄인 김은주 **본지는 신문윤리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Advertisement for Goseonhan Namaeun Baekje King's Secret (고스란히 남아있는 백제 장인의 숨결) featuring the Goseonhan Namaeun Baekje King's Secret (익산 왕궁리 오층석탑). Includes text about the stone pagoda's history and a list of phone numbers for various branches.